
 인천광역시	보 도 자 료		 도시 인천
담당 부서 반도체바이오과	배포일자	2023년 7월 7일(금) 총 3매	담당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바이오산업팀장 장일진 ☎440-3101 • 담당자 김춘석 ☎440-3104
사진(이미지)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보 도 시 점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인천시,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메인캠퍼스로 최종 선정

- 인천시 - 연세대 컨소시엄 구성,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선정 성과 -
- 연 2천여 중·저소득국 바이오 인력 양성, 국내 바이오 산업 경쟁력도 높여 -
- 내년 상반기 시설구축, 하반기 시범운영 거쳐 연말 정식 개소 예정 -

인천시가 ‘초격차 바이오 메카’의 입지를 다시 한번 다졌다.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연세대학교와 함께 지난 5월 보건복지부가 주관으로 공고한 「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사업」에 응모해 인천시가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(GTH-B) 메인캠퍼스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.

* GTH-B : Global Training Hub for Biomanufacturing

앞서 지난해 2월 세계보건기구(WHO)는 한국을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지정했는데, 당시 정부는 연 2,000명 이상의 중·저소득국의 글로벌 바이오 인력을 양성해 전 세계 백신 불평등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의향서를 제출했었다.

이에 정부는 지난 5월 중·저소득국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인력 양

성 뿐만 아니라 국내 바이오·백신산업 분야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 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번 사업을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했다.

이후 시는 지난 6월 2일 연세대학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민선8기 공약사업이기도 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(GTH-B) 구축사업 공모 제안을 제출했다. 전국 5개 지자체가 공모 신청서를 제출했는데, 서류심사와 현지 평가를 거쳐 인천시가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.

시는 인천 송도는 ▲공항 및 철도, 항만 등 접근성이 우수한 지리적 장점과 ▲백신·바이오 국내 및 국제교육(ADB 위탁) 경험 ▲이미 구축됐거나 구축 중인 백신·바이오 교육시설 및 장비를 연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를 최소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.

메인 캠퍼스는 송도에 위치한 연세대 국제캠퍼스 내 유희공간에 사무국, 강의실, 실험·실습실, 강사 대기실 등 주요시설과 실습 장비가 2024년 말까지 구축될 예정이다. 보건복지부가 설립 예정인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및 교육 과정을 총괄·운영하는 별도의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(GTH-B) 지원재단도 입주하게 된다.

2024년 상반기 시설 구축을 시작해, 2024년 하반기 바이오 생산공정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고, 연말에는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를 정식 개소해 운영할 계획이다.

이남주 시 미래산업국장은 “인천시가 세계보건기구(WHO)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의 교육 전담 기관인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(GTH-B) 메인 캠퍼스로 선정돼 국내 바이오산업 분야 인력 수요 대응은 물론, 세계적인 바이오 인재 양성의 메카도시로 도약하게 됐다”며 “앞으로 인천시 바이오 허브 생태계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

<참고사진>

